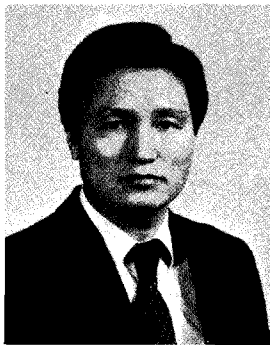


〈새해에는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 “수입제한제도 (Quota) 과연 필요한가?”



손 문 익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  
공장장)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또 다시 새로운 한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새해에 거는 기대는 더욱 커지는가 봅니다.

86년을 뒤돌아 보면 연초의 기대감과 달리 우리들 주변을 둘러싼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해를 보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허나 과거를 뒤돌아 보기에는 앞으로의 한해에 더욱 충실하리라 다짐해 보며 내가 몸담고 있는 사료업계, 나아가서는 축산업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사료원료 수급상황을 중심으로 몇가지 주문을 하며 기대해 봅니다.

첫째 ; 사료원료의 수입제한제도(Quota 제)는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제한제도는 국내유치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는 제도로써 과거의 예를 보면 배합사료 원료의 경우 연간 수요를 예측하여 전체 원료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수입수요를 예측하여 Quota량을 설정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86년도 수급계획상의 특징은 보다 정책적 의지를 가미하여

① 국산곡물의 사용을 최대한 유도하여 외화를 절감하고

② 사료의 공급제한으로 무절제한 가축증식을 억제하자는데 주안점이 두어졌으나 일반적으로 전체 Quota량을 무리하게 과소 책정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제 3 자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① 값비싼 국산곡물 보다는 경제성이 높고 시중에서 구득이 용이한 수입곡물의 가공품(예 : 밀가루 등)이 사료원료로 쓰일 것이 명약관화할 것이라는 점과

② 사료의 수요는 육류 소비량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고 보며

③ 축산업이라는 경제행위가 단순한 곡류원료의 제한만으로 통제가능할 것이라는 논리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④ 사료원료의 성질상 Quota제가 없다고 해서 필요량 이상 수입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가의 외환사정이나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 1인당 어떤 육류를 얼마까지만 생산, 섭취하자는 목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몰라도 Quota제의 무리한 운용은 자칫 잘못하면 나무를 보되 숲을 보

지 못하는 단편적 논리에 얽매어 사료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축산물 생산비를 가중시켜 국제경쟁력에서 뒤지고 외화낭비를 자초할 위험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 회원사별 Quota량 책정은 적정하였나를 살펴봅니다.

무리한 총량 Quota의 책정은 필연적으로 업체별 Quota에도 무리를 주게되는바 86년도 업체별 Quota량 책정에서는 생산실적 60%에 생산능력 40%가 감안되었고, 들리는 바로는 금년에는 생산실적 50%, 생산능력 50%를 감안하여 Quota량이 책정된다고 하는데 근거도, 효과도 불분명한 이러한 제한 조치는 더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86년도 예를 보더라도 85년도 수준으로 곡류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때 10개월이면 원료가 바닥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수십년분의 원료를 불필요하게 배정받는 업체도 있을 정도로 균형에 문제가 있었으며 무리한 업체별 Quota제의 운영은 필연적으로 업체간의 경쟁제한을 초래하여 대양축가 서비스의 질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다음해의 Quota량 확보를 겨냥한 무리한 시설증설을 자초하여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셋째 ; 옥수수과 잡곡의 사용비율 제한과 총곡류사용 비율의 상한선 설정이 적정하였나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① 옥수수와 잡곡의 혼합사용은 도입선의 다변화 정책과 함께 관민 합작으로 계획이 세워졌고 축산업계에 뿌리가 내려진 가장 성공적인 정책중의 하나로 생각되며 이 정책의 정착화를 통하여 국외적으로는 획기적 외화절감이 가능하였고 국내적으로는 저렴하고도 안정적인 사료공급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쿼터제는 필요한가? 쿼터량 배정은 합리적인가? 곡류사용의 갖가지 제한의 득실은 무엇인가? 닭들이 값비싼 밀가루를 먹어야하고, 80불짜리 소맥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며 90불짜리 소맥피를 사야하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인가?**

시행 초기에는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가 필요하였기에 6 : 4라는 지침이 필요하였으나 이제는 폐지하여도 무방하리라고 판단되며 오히려 무리한 지도가 낭비적인 요소로 전환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곡류사용의 상한선 설정은 이제 의미가 없으며 모든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곡류 단독의 외화사용량은 의미가 없으며 총 소요 외화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80불짜리 소맥을 눈앞에 보고도 90불짜리 소맥피를 수입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째 ; 수입자유화에 대한 대책은 적절하였는 가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86년 하반기부터 양계사료와 애완용 사료의 수입 자유화가 이루어 졌는데 이는 물량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료량에 약 35%에 해당됩니다.

개방경제에로의 궤도 수정을 꾀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 현실에서 수입자유화는 어느 업종이나 헤쳐나아가야할 필연적인 과제라고 판단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완제품의 수입자유화 정책을 택하기 위하여는

① 원료에 대한 수입자유화를 선행하여 국제시장에 대한 대응능력과 감각을 키워주고

② 관민합동으로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 대책을 수립하고

③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적절히 구사하여 완제품 수입을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읍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수준의 대책이 사전, 사후에 수립되는지 조금은 안타가운 심정입니다.

우리의 농촌현실은 현재와 같은 미맥중심의 경종농업으로는 소득의 향상이 이미 한계점에 이른 지 오래이며 농촌 소득중 축산을 통한 소득이 전체의 30%가까이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료가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민간업계의 능력을 믿고 전체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경쟁력 향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하겠기에 자율과 경쟁력 배양이 기업활동의 근간이 되어야 함을 87년에는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 선물용 계란박스 제작

계란소비촉진용,  
본회 또는 도지부로 신청바람.

“연말·연시, 신·구정 행사시 이용할 수 있는 선물용 계란박스(60개입)를 제작 배포중. 가로 31cm, 세로 29.5cm, 높이 13.5cm로 일반난좌(30개들이) 2개를 넣어 사용할 수 있는 아담한 박스로 가격에 비해 알찬 선물이 될 수 있음”

가격 : 개당 220원(부가세별도)  
신청 : 본회 사무국 ((02)752-3571~2)



\*지방은 각 도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삼단 대한양계협회**